

# 여전히 가혹한 여건

아태계에 대한  
혐오 현황  
2024년도

선거 열기로 후끈 달아오른 한 해, 아태계 주민들에 대한 집요한 인종 차별

STOP  
AAPI  
HATE

## 요약

데이터는 명확합니다—2024년, 극도로 분열된 총선 속에서 아태계(AA/PI)<sup>1</sup>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한 혐오 행위는 여전히 곳곳에 퍼져 있으며 심각한 해를 끼쳤습니다. 올해 Stop AAPI Hate는 전국적으로 아태계 주민들에 대한 혐오 행위<sup>2</sup>의 규모를 이해하고 연도별 추세를 분석하기 위해 두 번째 연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2024년 아태계에 대한 혐오의 현황을 다룬 보고서인 “여전히 가혹한 여건: 선거 열기로 후끈 달아오른 ‘24년 역시 아태계 주민들에 대한 끈질긴 인종 차별(Still Under Fire: Relentless Racism against Asian Americans and Pacific Islanders in a Heated Election Year)”은 이 조사에서 도출된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2024년에 Stop AAPI Hate의 신고 센터에 보고된 혐오 행위의 사례를 공유합니다. 이 자료들은 지난해 아태계 커뮤니티에 대한 증오와 그 영향에 대하여 광범위하고 생생한 실태를 묘사해줍니다. 이민자 커뮤니티에 대한 당장의 위협과 DEI(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노력의 해체—데이터 수집 및 보고 포함—등을 고려할 때, 우리 커뮤니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정확히 기록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2025년 1월 7일부터 15일까지 시카고 대학교에 소속된 비당파적 연구 기관인 NORC와 협력하여 약 1,600명의 아태계 성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조사는 아태계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한 가장 규모가 크고 대표성 있는 여론 조사 패널인 Amplify AAPI® Panel을 활용했습니다. 또한 태평양계 섬 주민 성인 표본의 비율을 높여서 이 커뮤니티의 추세와 차이점들이 확실하게 나타나도록 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아태계 혐오에 대한 주요 조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 2024년 인종 기반 혐오 행위의 발생률, 유형, 발생 장소, 표적화된 정체성.
- 혐오 행위의 부정적 영향.
- 혐오 행위에 대한 지원 받기 및 신고 시 맞닥뜨리는 어려움.
- 2024년 인종 차별을 줄이거나 저항하기 위한 활동 참여.
- 2025년 인종 차별에 대한 대응 활동의 활성화.

## 주요 발견 사항

조사 대상 아태계 성인 중 약 절반(53%)이 2024년에 인종, 민족, 또는 국적 때문에 혐오 행위를 경험했으며, 이는 2023년에 인종 기반 혐오 행위를 경험한 49%와 비슷한 수치입니다.

- 혐오의 발생률은 모든 성별, 지역, 소득, 정당 지지, 출생지, 언어, 교육 수준, 시민권, 지역별 민족 집단에 걸쳐 엇비슷하게 높았습니다.
- 올해에는 연령별 차이가 나타나 18~29세 젊은 성인(72%)이 혐오를 경험한 비율이 30~44세(54%), 45~59세(46%), 60세 이상(44%) 보다 높았습니다.
- 괴롭힘과 제도화된 차별은 여전히 가장 흔한 혐오 행위 유형으로, 아태계 성인 중 약 절반(48%)이 괴롭힘을 경험했으며, 약 24%는 제도화된 차별을 경험했습니다.
- 혐오 행위를 경험한 사람들 중 약 절반(53%)은 인종, 민족, 국적 외에도 다른 정체성 요소를 대상으로 한 교차적 혐오를 경험했습니다. 성별 요인은, 추가로 표적화된 정체성 요소의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sup>1</sup> 이 보고서에서 “Asian American and Pacific Islander(아시아계 미국인 및 태평양계 섬 주민)”은 “AA/PI”로 약칭합니다. “AA”와 “PI” 사이에 슬래시를 사용해 아시아계 미국인과 함께 묶일 때 종종 눈에 띄지 않는 태평양계 섬 주민 커뮤니티를 눈에 드러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태평양계 섬 주민 (“PI”)에는 하와이인 원주민이 포함됩니다.

<sup>2</sup> “혐오 행위”는 Stop AAPI Hate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특정 개인 또는 집단의 실제 또는 인식된 정체성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견으로 인해 개인 혹은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모든 사건을 지칭합니다. 여기에는 증오 범죄와 비범죄적 증오 행위가 포함됩니다.

**혐오를 경험한 사람들은 정신 건강 상태가 더 나빴으며, 혐오를 경험한 아태계 성인 중 70%가 자주 스트레스를 겪었다고 보고한 반면, 혐오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 중에서는 49%만이 그렇게 응답했습니다.**

- 또한, 혐오 경험을 한 사람의 59%가 자주 불안 증세를 느꼈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혐오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의 39%와 비교됩니다.
- 혐오 행위를 경험한 AA/PI 성인의 3분의 1 이상(38%)이 어떤 형태의 지원이 필요했지만 받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 아태계 성인 중 혐오 행위를 경험한 사람의 3분의 1은 어떤 형태의 지원을 받았지만, 지원을 받은 사람 중 68%는 받은 지원 중 적어도 한 가지 형태가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아태계 성인 중 혐오를 경험한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잠재적인 혐오 범죄나 시민권 침해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3분의 2 이상(77%)은 혐오 행위를 공식적으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 아태계 성인 중 혐오 행위를 경험한 사람의 40%는 이를 누구와도, 심지어 가족이나 친구에게도,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 공식 당국이나 기관(예: 인사부, 학교 직원, 경찰, 민권 보호 기관 등)에 신고하지 않은 주요 이유는 ‘신고할 만큼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과 ‘신고해도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 신고할 만큼 심각하지 않다고 답한 사람들 중 약 절반(51%)은 잠재적인 혐오 범죄나 민권 침해를 경험했습니다.

**2024년 기준 아태계 성인 중 2/3(66%)가 인종 차별을 줄이거나 저항하기 위한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 인종 차별을 줄이거나 저항하기 위한 활동에의 참여는 정당 선호, 민족적 배경, 그리고 혐오 경험을 겪은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었습니다. 민주당 지지자, 동남아시아 출신 성인, 그리고 혐오 경험을 겪은 사람들이 더 높은 참여율을 보였습니다.
- 인종 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활동에의 참여는 지난해부터 꾸준히 26%를 유지했습니다.

**혐오에 대한 아태계(AA/PI) 성인들의 대응 의식은 고도로 활발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 아태계 성인의 83%가 인종적 분위기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82%는 아태계의 인종차별 종식 능력에 대해 낙관적이며, 67%는 정의와 평등 노력에 참여할 동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 인종 내 아태계 연대(91%)와 인종 간 연대(87%)의 중요성에 대한 믿음은 매우 높습니다.

## **권장 사항**

### **정책 입안자**

- 아태계 혐오의 핵심 요소인 반이민 혐오를 규탄하십시오.
- 정책 수립을 통해 이민자 커뮤니티를 보호하십시오.
- 주 및 지방 정부의 시민권 보호 조치를 강화하십시오.
- 아태계 단체에 자금을 지원하여 문화적 맥락을 고려한 돌봄과 지원을 제공하십시오.

### **커뮤니티 구성원**

- 자신의 권리를 알고 정신 건강을 돌보십시오.
- 혐오에 대하여 발언하고 신고하십시오.
- AA/PI 단체와 연결하십시오.
- 허위 정보를 반박하십시오.
- 시민 참여와 응호 활동에 참여하십시오.

